

숙제·시험에 챗GPT 활용 늘어, 대학들 대응책 마련 부심

김진경 스위스 거주 작가

지난해 12월 말 대학원 학기말 시험 하루 전날 저녁이었다. 같은 수업을 듣는 이탈리아 출신 학생 R에게 문자메시지가 왔다. “내가 스위스에서 온라인 시험을 보는 게 처음이라 잘 몰라서 말인데, 혹시 내 컴퓨터에 달린 카메라가 시험 중에 날 감시해? 내가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는지도 다 기록되는 거야?” 스위스로 유학 온 뒤 처음 치르는 시험을 앞두고 R은 너무 두려워서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했다. 나는 “우리 학교에서 치러지는 모든 온라인 시험은 오픈북이고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상관없으며 카메라를 통한 감시도 없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시간 배분만 잘하라”는 답장을 보냈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며 스위스 대학들은 대부분의 시험을 온라인, 오픈북으로 전환했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진통을 겪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것이 R이 걱정했던 ‘시험 중 감시’였다.

대학들이 대면 수업을 중단했던 2020년 집에서 온라인 시험을 보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이 있었다. 취리히응용과학대학(ZHAW)은 2020년 가을 학기에 의심 사례 21건을 적발했다. 2021년 봄 학기에는 부정행위가 더 늘어났다. 총 142건이 확인돼 학생들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 대학은 온라인 시험 중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프록토리오(proctorio)라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다. 프록토리오는 컴퓨터 카메라를 통해 시험 중 학생의 머리와 눈동자 움직임, 주변 소리를 기록하고 학생들이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는지 알 수 있도록 네트워크 트래픽도 저장한다. 온라인 시험을 보는 동안 학생들이 절저히 감시당하는 셈이다.

스위스 교사 겸 의원, 국민투표도 검토
취리히응용과학대에 따르면 프록토리오 사용은 취리히칸톤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고 법적 문제도 없다. 하지만 감시 소프트웨어를 대학에서 사용한다는 게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개인의 자유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스위스 사회의 정체성에 반한다는 지적이었다. 좌파 정치단체인 크리포(KriPo, ‘취리히 비판 정치’)는 “합법적으로 승인된 것이라도 이 소프트웨어는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 강력한 감시하에 있다는 점이 시험 중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취리히응용과학대학과 달리 취리히대학(UZH)과 취리히공과대학(ETH)은 검토 끝에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학생을 신뢰해야 한다” ‘거짓 정보(부정행위가 아닌데 부정행위로 보고되는 사례)가 많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팬데믹 이후 뉴노멀이 된 온라인 시험이 최근 다시 도마에 올랐다. 부정행위 감시라는 과제는 같으나 이번에는 사안이 훨씬 복잡하다. 새로 등장한 챗(Chat)GPT 때문이다. ChatGPT는 미국 기업 OpenAI가 지난해 11월 말 출시한 인공지능(AI) 기반 챗봇(chatbot)이다. 입력창에 질문을 넣으면 몇 초 안에 대답을 내놓는다. 요구 사항에 맞춰 한편의 에세이를 써낼 수도 있다. 간혹 잘못된 정보를 장황하게 늘어놓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으로 주제에 맞는 깔끔한 텍스트를 산출한다. ChatGPT의 이런 특성이 현재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 분야다. 초중고 학생들의 숙제는 물론이고, 대학생들의 서술형 시험에도 ChatGPT가 유용하게 쓰인다. “학생들을 신뢰해야 한다”던 대학들도 ChatGPT가 등장하자 우왕좌왕이다.

숙제나 시험에 ChatGPT를 이용하는 것은 표절이다. 엄밀히 말하면 전통적 의미의 표절, 즉 ‘타인



도마에 오른 'AI 챗봇 표절'

ChatGPT, 질문하면 수 초내 해답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사례 증가

미국·호주 대학선 발 빠르게 금지

추후 판별하는 앱 GPTZero 개발

스위스 바젤대, 워킹그룹 꾸려 논의

규제보다 현명한 사용법 찾기 주력

의 결과물을 동의 없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범죄 행위'에서는 살짝 벗어나 있다. '타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피해자조차 없는 완전 범죄에 더 가깝다. 원하는 답이 몇 초 안에 금방 나온다는 것도 범죄 행위를 부추긴다. 이 새로운 표절은 'Aigiarism'이라 불린다. AI와 plagiarism(표절)의 합성어다. ChatGPT가 불러온 Aigiarism에 교육기관들이 대응하는 방식은 아직 제각각이다.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미국은 대체로 발 빠른 금지령을 선포했다. 뉴욕시대의 모든 공립학교는 ChatGPT 접속을 아예 막았다. '이 도구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다. 호주도 비슷하다. 시드니대학은 최근 '인공지능으로 산출한 내용'은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학문적 윤리성 정책'을 개정했다. 하지만 학교 통신망에서 ChatGPT를 막아도 VPN(가상 사설망)을 이용해 접속하는 방법

이 있고, 또 집에서 써서 제출하는 과제에 ChatGPT를 사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이 경우 결과물이 ChatGPT로 만들어진 것인지 추후 판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교사 부족 문제 해결에 챗봇 이용할 만

지난 1월 2일 공개된 GPTZero는 그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프린스턴대 학생 에드워드 티안이 개발한 이 앱에 의심스러운 텍스트를 넣으면 그것이 ChatGPT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알려준다. 판별 기준은 두 가지다. 첫째는 텍스트의 복잡성이다. ChatGPT의 산출물은 사람이 쓴 것보다 단순하다. 둘째는 변동성이다. 사람이 쓴 문장은 ChatGPT의 산출물보다 길이, 구조 등에서 변동이 더 심하다. 현재 하버드, 예일 등을 포함해 여러 대학에서 6000명 이상의 교수들이 GPTZero를 이용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령은 규제를 늘 반발적 앞서가기 마련이다. 복잡성과 변동성을 기준으로 ChatGPT 사용을 판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ChatGPT의 산출물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고 각 문장의 길이를 들쭉날쭉하게 바꾸면 GPTZero의 감시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인터넷 포럼 레드딴(reddit) 등에서는 이런 식으로 GPTZero에 걸려들지 않고 성공적(?)으로 시험에 통과했다는 대학생들의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 그것을 규제하는 기술, 그 규제를 피해갈 기술이 연이어 나타나는 이 상황을 전문가들은 '군비 경쟁'에 비유하기도 한다.

감시에 특히 예민한 스위스의 경우 무조건 금지보다는 제3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바젤대는 1월

중순 ChatGPT 문제를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꾸렸다. 'AI가 아닌 학생 스스로 시험을 치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시험 방식을 개발하고, 동시에 학생들에게 이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워킹그룹의 목적이라고 한다. 북서스위스 응용과학대(FHNW)도 'ChatGPT

사용을 허가하되 비판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스위스 사회민주당(SP) 소속 바젤란트 지역 의원인 안 키르슈마이어는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키르슈마이어는 바젤 지역 중학교 역사 교사이기도 한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중 절반 이상이 이미 ChatGPT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뉴욕처럼 ChatGPT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비슷한 챗봇이 가까운 미래에 더 발전한 형태로 나올 것이고, 그런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가르쳐야 한다”(스위스 공영방송 SRF 인터뷰). ChatGPT 사용 방식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이 문제를 기술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뜻이다.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결정짓는 것은 그 기술을 이용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ChatGPT의 한계와 가능성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 기술이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인다면 어떨까.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향후 10년간 교사 1만 명이상이 부족할 전망이다. ChatGPT의 도움을 받아 교사 한 명이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어떨까. AI 챗봇이 산출하는 내용 중 거짓 정보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방안까지 수업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탄생한 기술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것의 발전 방향이라도 우리가 정해야 한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챗GPT의 발달로 숙제나 시험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학들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사진은 KT DS에서 출시한 부정행위 탐지 솔루션 아르고스. [연합뉴스]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Since 1982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